

“中 부동산 위기, 국내 영향 예의주시”

경제부총리 “우리 금융시장 미치는 영향 제한적... 상저하고 경기 흐름 전만 변화 없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관련해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당장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고, 아시아 주변국과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

구이위안(컨트라가든), 위안안(시노오션) 등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직면하면서 중국 부동산과 금융시장 전반에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부동산 회사들의 어려움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는 중국 내 금융기관 및 중국 당국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하는 만큼 지금은 어떠한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상황을 긴밀하게 살펴 보면서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과 협의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관련 부서 간에 긴밀한 공조 하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 여러 시장 상황을 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경제 흐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상저하고’ 입장을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실적(성장률)이 0.9%(연대 하반기에는 1.7~2.0%로 상반기 경기 흐름 두 배 정도의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저하고’를 전망할 때 중국 경제 문제, 글로벌 금융 불안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경기, 최근 국제 유가 흐름 등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힌다”면서 “지금까지 시점으로 보면 전반적

인 경기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부동산 회사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 경기 회복세가 더 더뎠다는 게 아냐는 우려도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추가 외생변수가 장기화하고 그 폭이 커지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제 전망을 수정할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 당국에서 어떻게 수습할지, 조금 빠른 경기부양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두 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국내의 기관이) 공통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현재 (상저하고)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농진청, 올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공모 ‘진행 중’

국내 육성품종 재배·출하 작목반 등 대상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원예·특작 분야의 국내 육성품종 인지도 제고와 안정적인 현장 확산을 위해 2023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공모를 진행 중이다.

참여 대상은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개발·육성한 과수, 채소, 화훼, 특용작물 품종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며, 출하·유통 중인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단, 최근 3년 이내 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이상 수상 경력이 있으면 제외한다.

공모 참여 방법은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ta.go.kr) ‘정책홍보-새소식-공지 사항’에서 2023년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계획을 검색하고, 신청서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재배단지가 속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9곳의 생산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1곳은 국무총리 상과 상금 150만원, 최우수상 3곳은 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5곳은 각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 70만원을 수여한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생산단지는 국내 육성품종 보급 확대와 홍보를 위한 본보기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은 21일부터 실시하는 2023 을지연습을 앞두고 그 동안의 준비사항과 계통사무소의 협조사항을 점검하는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을지연습 사전교육을 16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실시했다.

‘21일부터 을지연습’... 전북농협, 사전교육 실시

김영일 본부장 “농협 소관분야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갖출 수 있는 연습의 장으로 삼을 것”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21일부터 실시하는 2023 을지연습을 앞두고 그 동안의 준비사항과 계통사무소의 협조사항을 점검하는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을지연습 사전교육을 16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실시했다.

전북농협은 사전교육을 통해 농협 조직의 전시 전환절차 훈련과 위기 상황을 가정한 사건메시지 검토, 군 부식 보급체계 구축 등 내실 있는 을지

훈련의 실시를 준비했으며 2023 을지연습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안보영상을 시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올해 을지연습은 최근 북한의 ICBM 탄도미사일 발사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농협 소관분야에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연습의 장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을지연습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민·관·군 4,000여 기관 48만여 명이 참가하는 정부차원의 종합적 비상대비 훈련으로 치러진다. /김옥기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중기청, 전북조달청과

공공조달 정책 현장 방문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과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정길용, 이하 전북조달청)은 공동으로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관료 지원에 16일 도내 디지털 LED 신호등 제조업체인 (주)전한신호등을(대표 문은미)를 방문해 기업의 경영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방문 기업인 (주)전한신호등은 2021년에 설립한 초기 창업기업으로 기존 3색 교통신호등과 같은 신호를 표출할 수 있는 LED를 가로부착대에 매립한 신호등과 지주일체형 태양광 가로등을 생산하는 여성기업이다.

현장에서 문은미 대표는 정부·지자체 등의 지원사업이 기업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지원사업 수행시 기업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사후에 정산 받는 경우 자금능력이 열악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업추진 방식 개선과 조달청 등에서 혁신성을 평가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가점부여나 추천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안태용 전북중기청장과 정길용 전북조달청장은 건의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수용하고, 관련기관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은 양 기관이 함께 하는 정책 현장 3번째 방문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및 판로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부담 등의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공동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옥기 기자

납품대금 연동 동행기업 한우물, 도내 7번째로 참여

중기업으로는 '제1호'로 신청... 협력사와 동반성장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농업회사법인 (주)한우물이 7번째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대기업 1개사(주)하림), 중견기업 4개사(동우화인랩(주), 대호기계공업(주), 대유에이피(주), 신젠타코리아(주)), 공공기관 1개사(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다.

중기업으로는 농업회사법인 (주)한우물이 제1호로 신청해 총 7개사 위탁 기업이 기업별 수탁기업 50개사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 이전에 미리 운영하게 된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에게는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한도 확대(60억원 → 100억원) 등 16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업 제1호로 동행기업에 참여한 농업회사법인 (주)한우물은 2006년 설립하여 방동부음밥 생산에 주력하는 기업으로 이번 동행기업 참여는 오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책임감 있

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전북중기청 안태용 청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중기업의 동행기업 참여를 뜻깊게 생각하며 (주)한우물의 모범적인 사례를 이어받아 지역 기업들의 동행기업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연동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충분한 협력이 필요한 만큼 동행기업 신청을 통해 시행일 이전에 연동제 적용 대상을 검토함으로써 행정제도 대비태세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북중기청은 연동제를 알리고 동행기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기업별 찾아가는 설명회, 상시 상담반 운영, 제조기업 대상 연동제 시행 공문 발송, 주요 산업단지 내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펼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납품대금 연동제.kr) ‘동행기업 참여하기’를 참조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캠페인